



豫審章

맛 친

槿

(本) 수 있는 그 보고 한 수 있는 그 보고 한

剛行」이라とならり 런저되ば산내다 오파군으원리 라마호우리な녕의 서로히면지될な녕은 우파박용화以際坡朴容爽」 군의 금압석【金회을 기다려독자재청의 안전에면で하게되었습니다 이뒤로뒤를니로하편 「下篇」을 계속런지한것이나 형편상 하편은 츄후에다른긔 色以后 在原世日「發展」中 の間が 公平上篇」色彩度が川田山 と 두별히군의자력을다한다[금강석]이라는 장편의소설을쓰게된다 금편소설에 부닷을적신일도슈차인는 신진자가의호사람으로 이번에문단에 부터를잡고 나타난지 임의심년을해우교호회이며 일주이자 沙母心 祖日人外四의 的年田曾里外京 日川子创山 · 刊の全局的の是 四川「奇悲」を全時の外の 金 었던귀<u></u>즉의집무

대한 대한 신상에(新聲祭)의 현곡 이 대한 사이십 오래구시부터 한 사이십 오래구시부터 한 사이십 오래구시부터 한 安邊郡金鴻稷獻穀耕作人은

横領金号

감(仁川府栗木里季龍甲)집에서 하오네시반증되아 골독으로볼 이난것을 그근첫 잇돈 사람 한걸파 다항이디사 등 이르지 다소 이로 진화된바 손희보극하미 다소 이르지

内と薄利多質의 目的の呈普通時勢보叶 すりとい 本店의自稱のかりをりい 本店の 中司昌典洋靴의 堅實美麗·多名 諸賢의賞替 同胞諸賢言謹告

但六七種의 洋靴見本色左의 表示する 오나 其外의如何を 式の라丘請求す人と 御安心すりユ倍

前愛護する全代望 四以上を 割引販賣するり

일주이장

日星酬應喜

地方은代金引換言

經濟靴專門 京城府寬勳洞一二○番地 昌興

